

TV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for various channels.

광고 완판, 내게 맡겨봐~



왼쪽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소지섭·유아인·드라마 '내 딸 금사월'·유승호

소지섭·유아인·유승호... 男스타 대세

시청률 높은 주말극은 인기 여전

'심장폭행남'도 광고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SBS TV 주말극 '애인있어요'가 '심장폭행남' 지진희와 1인4역 등갑을 펼치는 김현주의 열연으로 연일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지만 광고 판매는 신통치 않다. 그렇다면 광고가 잘 팔리는 드라마는 어떤 것일까.

시장과 방송 3사에 따르면 현재 광고 완판 행진을 기록 중인 드라마는 KBS 2TV 주말극 '부탁해요 엄마'와 월화극 '오 마이 비너스', MBC TV 주말극 '내 딸 금사월', SBS TV 월화극 '육룡이 나르샤'와 수목극 '리멤버-아들의 전쟁'이다. <평일엔 20~40세대 심장을 저격하라...유승호 성인연기자 전향 성공=미니시리즈 드라마의 혈투가 펼쳐지는 주중 밤 드라마에서는 20~40세대를 저격하는 작품에 광고가 몰린다. 시청 패턴 다양화로 광고 판매에 있어 시청률이 절대적인 잣대였던 시절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광고주들은 구매력이 있는 20~40세대를 사로잡는 드라마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인기 스타가 나오고,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으면 일단 합격이다. 시청률과 작품성은 두 번째 문제. 그 결과 현재 소지섭·신민아의 '오 마이 비너스'와 유아인·신세경의 '육룡이 나르샤', 유승호·박민영의 '리멤버-아들의 전쟁'이 1회부터 광고 완판 행진을 하고 있다. 광고주들은 특히 여성 시청자들의 구미를 당기는 작품에 주목하는데, 그러다보니 극중 남성 스타의 존재감이 광고 집행에 있어 여성 스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소지섭(38), 유아인(29), 유승호(22)가 2015년 연말 광고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다. 사실 '오 마이 비너스'나 '육룡이 나르샤'는 작품성에서 상당한 실감감을 안겨주고 있다. 스타들의 출연으로 화제는 되고 있지만 이런저런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아직까지 광고 완판 행진엔 타격을 받지 않고 있다.

<주말엔 남녀노소를 사로잡아라...'내 딸 금사월' 1회부터 완판행진=그런가하면 막장이네, 자기복제네, 업기적이네 등 온갖 조롱을 받음에도 시청률이 30%를 위협하고 있는 MBC TV '내 딸 금사월'은 1회부터 현재까지 쏙 광고가 완판 중이다. 주말에는 남녀노소를 사로잡아야한다. '내 딸 금사월'의 경우는 여성이고 A급이 아닌 백진희가 타이틀롤이지만, 긴 호흡인 주말 연속극의 특성상 다양한 인물군상에 비중에 골고루 분산되기 때문에 남녀 청춘스타의 존재감이 광고 판매에 별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 드라마의 경우 남자 주인공 윤현빈은 아예 신인급이다. '내 딸 금사월'은 전작 '왔다! 장보리'를 히트시킨 김순옥 작가 에 대한 믿음이 광고주들을 움직였고, 실제 뚜껑을 연 결과 시청률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계속 광고가 매도 다 팔리고 있다. tvN '응답하라 1988'처럼 트위터를 장악하지도, 사회적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지도 않지만 '내 딸 금사월'은 아직까지 파급력에서 케이블에 비교 우위를 점하는 지상파 채널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고, TV를 끄고 사는 '어르신'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오피라인에서 남녀노소를 확실하게 사로잡는 작품이다. KBS 2TV '부탁해요 엄마'도 온라인에서는 이렇다할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광고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말 밤 8시 KBS 2TV 채널에서 방송되며 시청률이 30% 전후를 오간다는 점 때문에 광고가 완판되고 있다. <완판되던 회당 약 3억~4억원>=을 하반기부터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서 기존 광고 매출 계산법에 변화가 생겼다. 이로 인해 광고 완판의 개념과 셈법이 달라졌다. 방송사들은 광고총량제가 도입되고, 방송 광고 시장이 얼어붙은 현재, 이 계산법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광고총량제로 지상파는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5(시간당 9분), 최대 100분의 18(10분48초) 이내에서 광고를 자율 편성할 수 있다. 광고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보너스 광고를 주기도 하고, 단가를 더 낮추기도 한다.

김정은 내년 3월 미국서 웨딩마치

배우 김정은(41)이 3년여간 만나온 남자친구와 내년 3월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김정은은 21일 오후 홍보사를 통해 공식입장을 내고 "대략 내년 3월께 미국에서 양가 가족들과 친지 분들을 모시고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며 "아직은 결혼식 날짜나 장소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의 남자친구는 동남아시아 재미동포로, 외국계 금융사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은 "3년여동안 따뜻한 인품과 자상함,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묵묵히 제 옆을 지켜주며 연기 생활에도 큰 힘이 되어주었던 분"이라며 "저의 부족함을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는 친구이자 연인인 한 사람을 만나게 돼 결혼을 하게 되는 건 큰 축복인 것 같다"고 남자친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어 "배우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자로서 생애 가장 특별한 날을 준비하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예쁘게 잘 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MBC TV 주말극 '여자를 울려'를 마치고 휴식 중인 김정은은 종영 직후 인터뷰에서 "남자친구가 많은 힘이 됐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산처럼 우직하게 있어 주는 사람이 있는 게 참 든든하고 좋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현중 친자 확인 "아버지로서 책임질 생각"

최씨 상대 명예훼손 등 맞고소는 그대로 진행 가수 겸 배우 김현중(29)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전 여자친구 최모(31)씨 측이 최씨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가 맞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씨 변호인인 선종문 변호사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8일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에서 김현중과 최씨 아이가 서로 부자관계에 있다는 감정서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김현중은 이달 14일 최씨의 아이, 변호인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찾아 친자 확인 검사를 받았다. 선 변호인은 "김현중은 자기 친자의 어머니인 최씨를 증거 없이 대국민 사과문, 공감법으로 매도해 명예를 훼손하고, 이 법원 유전자 검사와 관련하여도 '친자가 아닐 경우 최씨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인격 살인을 자행했다"며 "이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며, 앞으로는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중 측은 변호인 이재만 변호사는 "다만 최씨가 지난해 김씨의 폭행으로 아이를 유산했다고 말해 말할 수 없는 오명을 썼고, 그 부분은 반드시 밝혀 누명을 벗겠다"며 "최씨에 제기한 무고·공갈·명예훼손 관련 맞고소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중과 최씨는 작년 최씨가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이가 갈라졌다. 이후 두 사람은 화해하고 최씨는 고소를 취하했지만 지난 4월 최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면서 16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다시 화제가 됐다. 이어 김현중도 최씨 주장이 날조된 것이라고 무고·공갈·명예훼손 등 혐의로 12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은 지난 5월 입소해 경기도 파주 30사단 부대로 배치 받아 복무 중이다. /연남뉴스

EBS 1

Table with 4 columns listing EBS 1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플러스1

Table with 2 columns listing EBS Plus 1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플러스2

Table with 2 columns listing EBS Plus 2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2일 (음 11월 12일 壬申). Horoscope section with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